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의 : 미래전략연구부 김동영 부연구위원
 (063-280-7174, 010-4121-1210)
- 담당실장 : 기획조정실장 이동기 연구위원
 (063-280-7181)

보도시점 : 2016년 1월 11일(월)부터

전북연구원 2016 전라북도 10대 아젠다 발표

농업용 드론산업 등 32개 추진과제 제시 농생명 등 도정 3대전략 연구성과 기술 사업화 본격추진

-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8일 전라북도의 2016년 주요과제를 제시하는 ‘2016 전라북도 10대 아젠다’ 를 발표했다.
- 전북연구원은 2%대의 세계적 저성장지속과 미국금리인상 및 저유가로 인한 내수부족과 긴축재정, FTA체결, 인도·베트남 등의 신흥교역국 등장으로 인한 세계경제지도 재편,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18대 메가트렌드가 2016년도 전라북도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 메가트렌드를 2016년 전북도정 이슈와 접목한 STEEP분석을 통해 도출된 2016 전라북도 10대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2016 전라북도 10대 아젠다

번호	구분	10대 아젠다
1	삼라농정	농생명산업 가치사슬의 완성
2	토탈관광	토탈관광 본격 궤도진입
3	탄소산업	탄소산업 C&C 솔루션으로 시장확대
4	복지	전북형 마을복지 공동체 구축
5	새만금	새만금, 지금 필요한건 속도
6	안전·기후변화	야누스의 두 얼굴 ‘환경’, 위험은 낮추고 혜택은 높이고
7	연구개발특구	내발적발전의 원동력, 전북연구개발특구
8	미래산업	전북미래신산업: 상용차 자율주행, 농업용 드론, 3Tech 시선집중!
9	지역개발	전북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연계발전으로 2단계 도약
10	사회문화	3대 국제행사 개최로 전북 글로벌 브랜드 인식제고

- ‘2016 전라북도 10대 아젠다’는 전라북도 5대 전략사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복지·환경, 새만금은 물론 안전·기후변화, 연구개발특구, 미래산업, 지역개발, 사회문화 등 2016년 도민의 삶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분야별로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의 기업입주가 시작되는 2016년을 미생물 → 종자 → 농자재 → 식품으로 연계하는 농생명산업 가치사슬의 완성, 전북 관광패스라인의 본격시행과 동부권 관광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산악관광에 주목한 토탈관광 본격 궤도진입, 전북 4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탄소산업의 수요확대 등을 제시한 탄소산업 C&C솔루션으로 세계시장 확대를 제시했다.
- 공공 주도의 복지서비스와 복지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마을복지 공동체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과 한중경협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시한 새만금 지금 필요한건 속도 등 전라북도 5대 전략사업에 대응한 2016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전라북도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성과를 창업으로 연계하는 기술창업과 미래신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제시하고 있다.
- 테크비즈센터 설립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제안한 내발적 발전의 원동력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라북도의 새로운 산업전략을 제시한 전북 미래신산업 : 상용차 자율주행, 농업용 드론산업, 3Tech(어그테크 Ag-Tech, 푸드테크 Food Tech, 바이오테크 Bio-IT Tech) 시선집중,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이전과 제3의 금융허브육성을 제안한 전북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연계발전으로 2단계 도약 등이 앞으로 전라북도를 이끌 미래산업의 대표주자로 제시됐다.
- 이 외에도 안전한 삶과 생태환경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한 야누스의 두 얼굴 환경, 위험은 낮추고 혜택은 높이고 그리고 2023 세계챔버리대회 유치 등 3대 국제행사 개최로 전북 글로벌 브랜드 인식제고 등이 있다.

- 강현직 전북연구원장은 “2016년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도시조성 등이 완료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전북관광패스라인, 새만금공항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거나 시작되는 해” 라고 말하고 “그 동안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 사업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 전라북도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며 2016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